

문 1.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조선 후기의 상공업 발달과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배경으로
서민의 경제적·신분적 지위가 향상되었다.
이에 서당교육이 보급되고 ()와 같은 서민 문화가 성장하였다.

① 판소리 ② 탈놀이 ③ 사설시조 ④ 진경산수화

정답: ④

* 조선 후기 서민문화의 발달

조선 후기에는 상공업의 발달과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배경으로 문화면에서 새 기운이 나타났다. 서당 교육이 보급되고, 서민의 경제적·신분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서민 문화가 대두하였다. 양반을 중심으로 유교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던 문예 활동에 중인층과 서민층이 참여하여 큰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역관이나 서리 등의 중인층 및 상공업 계층과 부농층의 문예 활동이 활발해졌고, 상민이나 광대의 활동도 활기를 띠었다.

교양이나 심성 수련이 목표였던 조선 전기의 문예가 정적이고 소극적이었다면, 조선 후기의 문예는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런 경향은 자연히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고 고발하는 경향을 띠었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 소설의 보급은 그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 한글 소설은 영웅이 아닌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현실적인

세계가 배경이 되었다. 춤과 노래 및 사설로 서민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어 표현한 판소리와 탈춤은 서민 문화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회화에서는 그 저변이 확대되어 풍속화와 민화가 유행하였다. 음악과 무용에서는 감정을 대담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짙었다.

①, ② 조선 후기 문화의 새 기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인기 있는 분야는 판소리와 탈춤이었다. 판소리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창과 사설로 엮어 가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직접적이고 솔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 광대가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빼거나 더할 수 있었고, 관중이 추임새로써 함께 어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서민을 포함한 넓은 계층에서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판소리는 이 시기 서민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③ 조선후기에는 시조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선비들의 절의와 자연관을 담고 있던 이전의 시조와는 달리, 이 시기의 시조에는 서민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경향이 나타났다. 격식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설시조 형식을 통하여 남녀 간의 사랑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을 거리낌없이 표현하였다.

④ 조선 후기 그림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새 경향은 진경 산수화와 풍속화의 유행이었고, 서예에서는 우리의 정서를 담은 글씨의 등장이었다. 진경 산수화는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려 회화의 토착화를 이룩하였으며, 풍속화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정경과 일상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어 회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 풍속화는 서민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지만, 진경산수화는 중국 산수화에 대한 국풍(國風)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

문 2. 고려시대의 경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귀족들이 화폐 사용을 지지하여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 ② 고려 전기에 수공업의 중심을 이룬 것은 관청 수공업과 소(所) 수공업이었다.
- ③ 고려 후기에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소금 전매제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④ 농민이 진전(陳田)이나 황무지를 개간하면 국가에서 일정기간 소작료나 조세를 감면해 주었다.

정답: ①

* 고려시대의 경제 활동

고려는 후삼국 시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전시과 제도를 만드는 등 토지 제도를 정비하여 통치 체제의 토대를 확립하였다. 또, 수취 체제를 정비하면서 토지와 인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호적을 작성하였다. 아울러 국가가 주도하여 산업을 재편하면서 경작지를 확대시키고, 상업과 수공업의 체제를 확립하여 안정된 경제 기반을 확보하였다.

농업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었고, 상업은 시전을 중심으로 도시 상업이 발달하면서 점차 지방에서도 상업 활동이 증가하였다. 수공업도 관청 수공업 중심에서 점차 사원이나 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간 수공업으로 발전해 갔다. 송, 원을 중심으로 거란, 여진, 일본 등과 무역을 전개하였다.

①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폐가 발행되었다. 성종 때에는 철전인 건원 중보를 만들었으며, 숙종 때에는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과 활구(은병)라는 은전을 만들었으나,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 일반적인 거래는 여전히 곡식이나 삼베를 사용하였다.(∴ 자급자족적 농업 중심 경제)

② 고려 전기에는 관청 수공업과 소 수공업이 중심이었으나, 후기에는 민간 수공업과 사원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중앙과 지방에 있던 관청에서는 그 곳에서 일할 기술자를 공장안에 올려 물품을 생산하게 하였으며, 농민을 부역으로 동원해 보조하게 하였다. 기술자는 주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류, 가구류, 금은 세공품, 견직물, 마구류 등을 제조하였다. 소에서는 금, 은, 철, 구리, 실, 각종 옷감, 종이, 먹, 차, 생강 등을 생산하여 공물로 납부하였다

③ 고려 후기에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소금의 전매제를 시행하였다.

④ 농민은 조상이 물려준 토지인 민전을 경작하거나, 국·공유지나 다른 사람의 소유지를 경작하였다. 또, 품팔이를 하거나 부녀자들이 삼베, 모시, 비단등을 짜는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대개 농민은 소득을 늘리려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웠다. 농민이 진전이나 황무지를 개간하면 국가에서 일정 기간 소작료나 조세를 감면해 주었다. 경작하던 주인이 방치해서 황폐해진 토지인 진전을 개간할 때, 주인이 있으면 소작료를 감면해 주고, 주인이 없으면 개간한 사람의 토지로 인정해 주었다.(국가의 농업 생산 독려)

문 3. 조선 전기의 상업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인(貢人)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 ② 시전이 도성 내 특정 상품 판매의 독점권을 보장받기도 하였다.
- ③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은 대외 무역을 통해 대상인으로 성장하였다.
- ④ 경강상인들은 경강을 중심으로 매점 활동을 통해 부유한 상업 자본가로 성장하였다.

정답: ②

* 조선 전기의 상업 활동

조선은 조세, 공납, 역의 수취 제도를 다시 정립하여 국가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양반 지배층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였다.

농업에서는 유교적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농서의 편찬과 보급, 수리 시설의 확충 등 안정된 농업 조건을 만들기 위한 권농 정책이 추진되었다. 상공업에서는 시전의 설치, 관영 수공업의 정비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런 토대 위에 점차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상공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방에서 장시가 출현하였다. 민간 상공업이 성장하면서 점차 관영 상공업 체제가 쇠퇴하였다.

16 세기에 이르러서는 지주 전호제가 발달하여 양반 지주들이 토지 소유를 확대하고 수취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토지를 잃고 몰락해 가는 농민들로 사회적 동요가 심해졌다.

① 조선 후기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어용 상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농민도 대동세를 내기 위하여 토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쌀, 벼, 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② 조선은 고려보다도 상업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종로 거리에 상점가를 만들었다. 여기에 개경에 있던 시전 상인을 한양으로 이주시켜 장사하게 하는 대신에 점포세와 상세를 거두었다. 시전 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이들 시전 중에서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베, 무명을 파는 점포가 가장 번성하였는데, 후에 이를 육의전이라 하였다. 또, 이들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시서를 두었다.

③ 조선 후기에는 국제 무역에서 사적인 무역이 허용 되면서 상인이 무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 중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상인은 의주의 만상과 동래의 내상이었으며, 개성의 송상은 양자를 중계하며 큰 이득을 남기기도 하였다. 특히, 의주의 만상은 대중국 무역을 주도하면서 재화를 많이 축적하였다.

④ 조선 후기에 들어 포구가 새로운 상업 중심지가 되었다. 포구의 상거래는 장시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 종래의 포구는 세곡이나 소작료를 운송하는 기지의 역할을 했으나, 18 세기에 이르러 강경포, 원산포 등이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포구를 거점으로 선상, 객주, 여각 등이 활발한 상행위를 하였다. 선상은 선박을 이용해서 각 지방의 물품을 구입해 와 포구에서 처분하였는데, 운송업에 종사하다가 거상으로 성장한 경강 상인이 대표적인 선상이었다. 그들은 한강을 근거지로 하여 주로 서남 연해안을 오가며 미곡, 소금, 어물 등을 거래하였다.

4. 밑줄 친 기구의 기능에 속하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중앙 관서 중 3사의 관원을 우대하였다.
이곳을 거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 ① 외교 문서를 작성하였다.
- ②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였다.
- ③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 ④ 옥새와 부절(符節)을 관리하였다.

정답: ②

* 조선의 언론 기관 삼사(三司)

사헌부(감찰), 사간원(간쟁), 홍문관(문한)의 3사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정사를 비판하며, 문필 활동을 하면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 3사의 언론은 고관은 물론이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한 여러 규정이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은 3사의 기능 강화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시대 정치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① 승문원: 도제조(정1품), 외교문서 작성 담당 (槐院: 괴원)

③ 승정원: 도승지(정3품), 왕명출납과 비서기능(銀臺: 은대, 喉院: 후원)

④ 이조의 속아문 중 하나인 상서원에서 옥새와 부절을 관리하였다.

문 5. 삼국 문화의 일본 전파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 기>-----

- ㄱ. 왕인 - 천자문과 논어 전파
- ㄴ. 담징 - 종이와 먹의 제조술 전파
- ㄷ. 혜자 - 호류지 금당 벽화 제작
- ㄹ. 아직기 - 조선술과 제방 축조술 전파
- ㅁ. 노리사치계 - 일본 쇼토쿠 태자 교육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정답: ①

* 삼국 문화의 일본 전파

삼국의 문화는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 고대 문화 성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삼국 중에서 일본과 가까웠던 백제가 삼국 문화의 일본 전수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4세기에 아직기는 일본의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고, 뒤이어 일본에 건너간 왕인은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고 가르쳤다. 6세기에는 노리사치계가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이렇게 전래된 백제 문화를 바탕으로 일본의 세계적 자랑인 고류 사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호류 사 백제 관음상이 만들어졌다. 이밖에도 5경 박사, 의박사, 역박사와 천문 박사, 채약사, 그리고 화가와 공예 기술자들도 건너갔는데, 이들에 의하여 목탑이 세워졌고, 나아가 백제 가람 양식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고구려도 일본 고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7세기 초에 담징은 종지와 먹의 제조 방법을 전하였고, 호류 사의 벽화를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승려 혜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으며, 혜관은 불교 전파에 큰 공을 세웠다. 일본 나라 시에서 발견된 다카마쓰 고분 벽화가 고구려 수산리 벽화 고분과 흡사한 점에서 고구려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다.

신라는 일본과 문화 교류는 적었지만, 배 만드는 기술(조선술)과 제방 쌓는 기술(축제술)을 전해 주어 한인의 연못이라는 이름까지 생기게 되었다. 삼국의 음악도 전해져 일본 음악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삼국의 문화는 6세기경의 야마토 조정의 성립과 7세기경에 나라 지방에서 발전한 아스카 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문 6. 다음의 묘사와 관련된 외교 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시문을 구하여 얻은 자는 귀천현우(貴賤賢愚)를 막론하고 우러러보기를 신선처럼 하고 보배로 여기기를 주옥처럼 하지 않음이 없어, 비록 가마를 메고 말을 모는 천한 사람이라도 조선 사람의 해서(楷書)나 초서(草書)를 두어 글자만 얻으면 모두 손으로 이마를 받치고 감사의 성의를 표시한다.

- ① 1811년까지 십여 차례 수행되었다.
- ② 일본의 정한론을 잠재우는 데 기여하였다.
- ③ 일본 막부가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었다.
- ④ 18세기 후반 일본에서 국학 운동이 일어나는 자극제가 되었다.

정답: ②

* 조선의 통신사

조선 후기 일본은 조선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에도 막부의 쇼군(將軍)이 바뀔 때마다 그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조선에 사절의 파견을 요청해 왔다. 이에 조선에서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 회에 걸쳐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통신사 일행은 적을 때에는 300여 명, 많을

때에는 400~500 명이나 되었고, 일본에서는 국민으로 예우하였다. 일본은 이들을 통하여 조선의 선진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자 하였다. 따라서, 통신사는 외교 사절로서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도 하였다.

② **정한론**: 187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 정계에서 강력하게 대두된 한국에 대한 공략론(攻略論).

메이지유신 직후인 1868년(고종 5) 일본정부는 그들의 왕정복고(王政復古)를 조선정부에 통고하고 양국의 국교회복을 청하는 사신을 보내 왔으나, 척왜정책(斥倭政策)으로 기운 대원군 집정의 조선정부는 서계(書契:外交文書)의 격식이 종전과 같지 않고 도서(圖書:符印)도 조선정부가 인각(印刻)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사신의 접견조차 거부하였다. 이로부터 양국은 외교문서의 수리를 놓고 1년을 논박으로 보내다가 일본은 대조선(對朝鮮) 외교를 전담하여 온 쓰시마도주[對馬島主] 소오씨[宗氏]로부터 그 직임을 회수하고 1869년과 1870년 외무성 관리를 파견하였으나, 조선측의 완강한 거부에 부닥쳐 타결을 보지 못하였다. 1872년에는 외무대승(外務大丞)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군함을 이끌고 부산에 내도하였으나, 조선측은 '왜사(倭使)가 군함을 타고 오다니 상대해 줄 수 없다'고 냉대하여 수개월 동안 체류하다가 돌아갔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일본의 조야에서는 정한론이 세차게 일어나고 이후 운요호 사건과 강화도약으로 이어졌다.

④ 17세기 에도 막부 출범 이후 일본은 쇄국정책을 펼쳤지만, 네덜란드(난학)와, 조선(통신사)의 문화를 받아들여 조닌 문화(상인층 배경 문화)가 등장하고, 18세기 후반에는 국학 운동으로 발전하여 이후에 막부 타도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문 7. 다음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의 집권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토(西土)에 있는 자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을 자
있겠는가. 막상 급한 일을 당해서는 …… 과거에는 반드시
서로(西路)의 힘에 의지하고 서토의 문을 빌었으니 400년
동안 서로의 사람이 조정을 버린 일이 있는가. 지금 나이
어린 임금이 위에 있어서 권세 있는 간신배가 날로 치성
하니 …… 흉년에 굶어 부항 든 무리가 길에 널려 늙은이와
어린이가 구렁에 빠져 산 사람이 거의 죽음에 다다르게 되었다.

- ① 왕실의 외척이 세도를 명분으로 정권을 잡았다.
- ② 호조와 선혜청의 요직을 차지하여 재정 기반을 확보하였다.
- ③ 의정부와 병조를 권력의 핵심 기구로 삼고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 ④ 과거 시험의 합격자를 남발하고 뇌물이나 연줄로 인사를 농단하였다.

정답: ③

* 조선 후기 세도정치기 (1800~1863)

정조의 탕평 정치로 말미암아 왕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은 결과적으로 세도 정치의 빌미가 되었다. 정조가 죽은 후 3 대 60여 년 동안 안동 김씨나 풍양조씨 같은 왕의 외척 세력이 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세도 정치기에는 붕당은 물론, 탕평파와 반탕평파 같은 정치 집단 사이의 대립적인 구도도 없어지고, 중앙 정치를 주도하던 정치 집단은 소수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면서 그 기반이 축소되었다.

권력 구조에서도 고위직만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고, 그 아래의 관리는 언론 활동 같은 정치적 기능을 거의 잃은 채 행정 실무만 맡게 되었다. 비변사가 핵심적인 정치 기구로 자리잡았으며, 유력한 가문 출신의 몇몇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리하여 인사, 재정, 군권 등을 비롯한 호조, 선혜청과 같은 재정기관을 장악하여 재정기반을 굳혔으며, 훈련도감을 비롯한 군영도 장악하였다.

19세기의 세도 정권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 가려는 능력도 지니지 못하였다. 세도 정권은 정조가 등용하였던 재야 세력인 남인, 소론, 지방 선비들을 권력에서 배제하여 사회 통합에 실패하였다. 향촌에서는 지방 사족을 배제한 채 수령이 절대권을 가지고 조세를 거두도록 하였다.

세도 정치기에는 과거제의 문란과 매관매직의 성행으로 인한 관료들의 불법수탈 등 비리가 만연하였으며, 탐관오리들의 부당한 조세 수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더구나 자연 재해가 잇따라 기근과 질병이 널리 퍼지고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농민의 조세 부담은 더욱 무거워져 농촌 사회의 불만은 극에 달하였다. 부당한 수탈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문 8. 고려시대 백성들의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기술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 기>-----

- ㄱ. 아들이 없을 경우 제사를 지내기 위해 양자를 들였다.
- ㄴ. 장례와 제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주로 유교적 규범을 따랐다.
- ㄷ. 여러 가지 조세와 잡역 등의 부담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 ㄹ. 초기의 신앙적인 향도가 후기에는 점차 마을의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바뀌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정답: ③

* 고려시대 백성들의 생활 모습

•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으며,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에 기재하여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없을 때에는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으며, 상복 제도에서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공을 세운 사람의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상을 받았다.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 장례와 제사에 관한 의례는 유교적 규범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대개 토착 신앙과 융합된 불교와 도교의 풍속을 따랐다.

• 고려 시대의 농민은 조세, 잡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부담을 졌다.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은 국가 안정에 필수적이었으므로, 국가에서는 이를 위하여 여러 사회 정책을 펼쳤다.

• 농민은 일상 의례와 공동 노동 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 공동체 조직의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신앙 조직이었던 향도였다.

향도는 매향 활동을 하면서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불상, 석탑을 만들거나 절을 지을 때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후기에 이르러 점차 신앙적인 향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되는 향도로 변모되어 마을 노역, 혼례와 상장례, 민속 신앙과 관련된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 조직으로 발전해 갔다.

ㄱ. 조선 후기에는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으

며, 부계 위주의 족보를 적극적으로 편찬하였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사는 동성 마을을 이루어 나갔다. 따라서, 이 때에는 개인이 개인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종중이라고 하는 친족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되었다.

ㄴ. 조선 전기(세종 대)에는 국가의 행사를 오례에 따라 유교식으로 거행하였으며, 사대부에게도 주자가례의 시행을 장려하여 유교 윤리가 사회 윤리로 자리잡게 하였다.

문 9. 다음의 성명이 발표된 이후 시작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정책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우리들은 3천만 한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국, 영국, 미국, 소련, 캐나다, 호주 및 기타 제국의 대일 선전을 축하한다. 일본을 쳐서 무찌르고 동아시아를 재건하게 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인 까닭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한국 전 인민은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여 한 개의 전투 단위로서 추축국(樞軸國)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한다.

(이하 생략)

-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 선전포고 -

-----<보 기>-----

- ㄱ. 징병
- ㄴ. 농촌진흥운동
- ㄷ. 신사참배
- ㄹ. 조선여자정신대 동원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정답: ④

* 임정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 선전포고 (1941.12)와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

1940년대에는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또,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고,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특히, 일제는 강제 징용으로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학도 지원병 제도, 징병 제도(1944)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또, 젊은 여성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여자 정신대 근로령: 1944)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으며,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ㄷ. 농촌진흥운동(1932~1940)

ㄴ. 신사참배: 한일합방(1910) 전후에도 신사참배는 존재하였으며, 1930년대에 들어 대륙침략을 재개한 일제는, 이를 뒷받침할 사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일반인은 물론 종교계에도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문 10. 조선 전기의 경제 정책과 경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전법에서 과전은 관리들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지급한 것이다.
- ② 양반도 간이 수리 시설을 만들고, 중국의 농업 기술을 도입하는 등 농업에

관심이 많았다.

③ 16세기에 이르러 수취 제도의 폐단과 지주전호제의 발달로 인해 몰락하는 농민이 증가하였다.

④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거두는 조세는 경창으로 수송하지 않고 그곳의 군사 비와 사신 접대비로 쓰게 하였다.

정답: ①

* 조선 전기의 경제 정책과 경제 활동

① 조선은 관리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토지 제도를 운영하였다.(과전법: 토지의 수조권 지급)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는데,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휴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15 세기 후반에는 직전법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다가 16 세기 중엽에는 이마저도 폐지하였다.

② 조선 전기에는 국가의 중농정책에 따라 지배층의 농민 수탈 금지하고 여러 농업 권장책을 펴쳤다.

(예: 수리시설 확충, 개간 장려, 양전 사업, 농서 편찬(금양잡록, 농사직설 등))

또한 양반 지주층도 농업생산 증대에 관심을 가져 수리시설 확충, 농법개량 등

을 주도하였다.

③ 16세기에 이르러 직전법 폐지에 따른 지주-전호제의 확산과 수취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폐단이 심해지면서 몰락하는 농민이 증가하였다. 공납에서는 중앙 관청의 서리가 공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많이 챙기는 방납이라는 폐단이 나타났다. 방납이 증가할수록 농민의 부담도 증가하였다. 공물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농민이 도망을 하면 그 지역의 이웃이나 친척에게 대신내게 하였다. 이 때문에 유망 농민이 더욱 증가하였다.

④ 조선 시대의 조운로에 있어서 평안도와 함경도는 국경에 가깝고, 특히 평안도는 사신의 내왕이 잦은 곳이라서 그 지역의 조세는 군사비와 사신 접대비로 썼다.(영류 지역)

문 11. 대한민국헌법 전문의 서두이다. (가), (나), (다)에 들어갈 역사적 사건을 <보기>에서 골라
옳게 배열한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가)(으)로
건립된 (나)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다)을(를) 계승
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이하 생략)

-----<보 기>-----

- ㄱ. 동학농민운동 ㄴ. 광무개혁
ㄷ. 3.1운동 ㄹ. 대한민국임시정부
ㅁ. 4.19민주이념 ㅂ. 5.18광주민주화운동

① ㄱ - ㄴ - ㄷ ② ㄴ - ㄷ - ㄹ ③ ㄷ - ㄹ - ㅁ ④ ㄹ - ㅁ - ㅂ

정답: ③

*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나오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과 계승

• 3·1 운동(1919. 3)을 계기로 우리 민족은 조직적으로 독립 운동을 추진하고, 국민국가 건설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서울(한성정부)과 연해주(대한국민의회), 상하이(임시정부)에 각각 정부가 조직되었고, 마침내 이를 통합하여 상하이에 대한 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하였다(1919. 9)

•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하여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마침내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문 12. 다음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그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45년 말 현재 남한의 토지 소유 상황>

(단위 : 만 정보)

구 분	답	전	계
농 경 지	128(100%)	104(100%))	232(100%)

소 작 지	89(70 %)	58(56%)	147(63%)
전(前) 일본인 소유	18	5	23
조선인 지주 소유	71	53	124
자 작 지	39(30 %)	46(44%)	85(37 %)

- ① 유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이었다.
- ② 임야 등 비경지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③ 신한공사를 핵심 추진 기관으로 삼았다.
- ④ 북한의 토지 개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정답: ②

* 농지개혁(1949: 법 제정, 1950~1957: 실시)

제헌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 자립과 농업생산력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49.6.21. 법률 31호).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체제하의 자유민주국가이므로 북한과 같이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는 허용되지 않아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토(소작인이 경작하는 농토)에 한하여 정부가 5년 연부보상을 조건으로 소유자로부터 유상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해 주고, 농민으로부터 5년 동안에 농산물로써 정부에 연부로 상환하게 하는 이른바 유상몰수·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지주와 소작인 간의 분쟁 등은 해결되었으나, 반면 지주계급의 몰락을 초래하였고, 또한 이 법에서 농가의 농지소유한도를 3정보로 제한하여 그 소작·임대차 또는 위탁경영을 금지하고 매매도 제한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영세화와 농촌근대화의 장애요인이 되었다. 그 때문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으므로, 현행 헌법은 이를 참작하여 제121조에서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하되,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농촌근대화의 길을 도모하고 있다.

②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서 임야 등 비경지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③ 신한공사(1946.10): 미군정의 기관으로, 토지 및 재산을 관리하던 기관이었다.

일제 강점기 때 동척과 같은 개념으로서, 후일 토지는 농지개혁법(1949)으로 농민들에게 분배되고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1949)으로 연고자에 분배됨

④ 북한의 토지 개혁이 무상몰수·무상분배의 형태로 남한보다 먼저 이루어졌다(1946)

문 13. 다음을 주창한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도(西道)로써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겠는가 하니 아니다.
…… 영부의 모양은 태극의 그림과 같고 혹은 활 궁(弓)자를 겹쳐 놓은 것과 같다. 이 부적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며 또 내 주문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위하게 하라. 그러면 너도 역시 오래 살아서 온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다.

① 전라도를 중심으로 포교를 시작하였다.

② 5적 암살단을 주도한 나철이 창시하였다.

- ③ 신채호의 민족주의 역사학을 탄생시켰다.
- ④ 수덕문 . 안심가 . 논학문 등을 전파하였다.

정답: ④

* 조선 말기 민족 종교 동학의 창시

동학은 1860년에 경주 출신인 최제우가 창도하였다. 동학에는 19 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조선 사회가 처한 여러 사회 상황이 반영되었다. 교리는 유·불·선의 주요 내용이 바탕이 되었고, 주문과 부적 등 민간 신앙의 요소들이 결합되었다. 또, 사회 모순을 극복하고, 일본과 서양 국가의 침략을 막아 내자는 주장을 폈다.

동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시천주(侍天主)와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지 않고, 노비 제도를 없애며, 여성과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구하였다. 조선의 지배층은 신분질서를 부정하는 동학을 위험하게 생각하여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한다는 죄로 최제우를 처형하였다.

그 뒤를 이은 최시형은 교세를 확대하면서 동경 대전(동학의 경전: 수덕문 . 안심가 . 논학문 등으로 구성)과 용담유사(포교 가사)를 펴내어 교리를 정리하는 한편, 의식과 제도를 정착시켜 교단 조직을 정비하였다. 다시 교세가 커진 동학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는 물론,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로 퍼져 나갔다.

②, ③ 5적 암살단을 주도한 나철이 창시한 종교는 대종교(단군 숭배)이고, 신채호의 대단군조선·고조선·부여·고구려 중심의 역사인식체계를 수립하는데 큰 영향을 끼쳐 민족주의 역사학의 배경이 되었다.

문 14. 우리 역사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설명만으로 옳은 것은?

- ㄱ.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순으로 발전 하였다.
- ㄴ. 고대사회의 불교는 현세구복적이고 호국적인 성향이 있었다.
- ㄷ. 조선시대 농촌사회에서는 두레, 계와 같은 공동체 조직이 발달하였다.
- ㄹ. 전근대사회에서 신분제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정답: ②

* 우리 역사의 특수성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문화)

우리 조상들은 유구한 역사를 거치면서 슬기를 발휘하고 노력을 기울여 문화

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 문화는 다른 어느 민족의 그것과도 구별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보편적 가치(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속성)를 추구해 온 문화이다.

선사 시대에는 아시아의 북방 문화와 연계되는 문화를 이룩하였고, 그 후 중국 문화와 깊은 연관을 맺으면서 독자적인 고대 문화를 발전시켰다.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정신적 이념으로 채택하였으며, 조선 시대에는 유교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문화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와 유교는 외래 사상을 그대로 들여온 것이 아니라, 이를 한국화하고 토착화시킴으로써 한국 사상으로서의 개성을 확립하였다. 즉, 우리 조상들은 불교와 유교를 소화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 튼튼한 전통 문화의 기반 위에서 선진적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민족 문화 발전의 열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민족 문화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민족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민족 문화를 보존함과 아울러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 ㄱ.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순으로 발전 하였다.(보편성)
- ㄴ. 고대사회의 불교는 현세구복적이고 호국적인 성향이 있었다.(특수성)
- ㄷ. 조선시대 농촌사회에서는 두레, 계와 같은 공동체 조직이 발달하였다.(특수성)
- ㄹ. 전근대사회에서 신분제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보편성)

문 15. 다음 자료와 가장 밀접한 역사적 사건은?

새로 만든 국기를 묵고 있는 누각에 달았다. 기는 흰 바탕으로 네모졌는데 세로는 가로 5분의 2에 미치지 못하였다. 중앙에는 태극을 그려 청색과 홍색으로 색칠을 하고 네 모서리에는 건(乾)·곤(坤)·감(坎)·이(離)의 4괘(四卦)를 그렸다.

- ① 김윤식 등이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배웠다.

- ② 김홍집 등이 <조선책략>을 가져와 국제 정세의 이해에 기여하였다.
- ③ 김옥균 등이 일본에서 차관 교섭을 벌이고 구미 외교 사절과 접촉하였다.
- ④ 박정양 등이 일본 정부 기관의 사무와 시설을 조사하고 시찰 보고서를 올렸다.

정답: ③

* 태극기 탄생의 배경 3차 수신사 (1882.9)

임오군란(1882)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본국에 사죄 사절을 파견한다는 제물포조약에 따라 1882년 8월에 박영효를 정사, 김만식을 부사 김옥균을 고문으로 하는 사절(3차 수신사: 1882.9))을 일본에 파견하였으며, 이 때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태극기(1883. 1.27 국기로 공식 인정)를 처음으로 고안하였다고 전해지나 오늘날에는 부정되고 있다.(고종 고안설 대두)

① 영선사(1881): 김윤식 등이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배웠다.

후일 기기창 설치에 기여.

② 2차 수신사(1880): 김홍집 등이 <조선책략>을 가져와 국제 정세의 이해에 기여하였다.

③ 김옥균 등이 일본에서 차관 교섭을 벌이고 구미 외교 사절과 접촉하였다

(1883).

김옥균은 임오군란 후 1882년 9월 수신사 박영효(朴泳孝)의 고문이 되어 제2차로 일본에 건너가서 수신사 일행을 먼저 귀국시키고 서광범(徐光範)과 함께 더 체류하면서 본국으로부터 유학생들을 선발해 보내도록 하여 일본의 여러 학교에 입학시킨 다음 1883년 3월 귀국하였다.

김옥균은 일본 동경에 체류하는 동안 《치도약론 治道略論》을 저술하였다. 김옥균은 1883년 6월 국왕의 위임장을 가지고 제3차로 일본에 건너가서 국채(國債: 차관)를 모집하려 하였다.

--

* 이 문제는 출제자가 무엇을 물어보고자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즉 사절단(수신사)을 물어보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가까운 사건(1883년)을 물어보는지 명확한 의도를 알 수 없다.

④ 시찰단(구 신사유람단, 1881): 박정양 등이 일본 정부 기관의 사무와 시설을 조사하고 시찰 보고서를 올렸다.

문 16. 다음의 자료에 나타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어서 계곡을 따라 살며 골짜기 물을 식수로 마셨다.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여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는 부족하였다.

- 삼국지 동이전 -

- ① 국동대혈에서 제사를 지내는 의례가 있었다.
- ② 가족 공동의 무덤인 목곽에 쌀을 부장하였다.
- ③ 특산물로는 단궁.과하마.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 ④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50만 전을 배상토록 하였다.

정답: ①

* 초기 국가기의 고구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는 부여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주몽이 건국하였다(기원전 37). 주몽은 부여의 지배 계급 내의 분열, 대립 과정에서 박해를 피해 남하하여 독자적으로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고구려는 압록강의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졸본(환인) 지방에 자리잡았다. 이 지역은 대부분 큰 산과 깊은 계곡으로 된 산악 지대였기 때문에 농토가 부족하여 힘써 일을 하여도 양식이 부족하였다.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하고 평야 지대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압록강 가의 국내성(집안)으로 옮겨 5 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그 후, 활발한 정복 전쟁으로 한의 군현을 공략하여 요동 지방으로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는 부전 고원을 넘어 옥저를 정복하여 공물을 받았다.

고구려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렸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 회의를 통하여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또, 고구려에는 서옥제라는 풍속이 있었다. 그리고 건국 시조인 주몽과 그 어머니 유화 부인을 조상신으로 섬겨 제사를 지냈고, 10월에는 추수감사제인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아울러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② 옥저는 어물과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하였고, 토지가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되었다. 옥저는 고구려에 소금, 어물 등을 공납으로 바쳤다. 옥저는 고구려와 같이 부여족의 한 갈래였으나, 풍속이 달랐고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그리고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또,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③ 동예 역시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 어로 등 경제 생활이 윤택하였다. 특히,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특산물로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동예에서는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그리고 족외혼(族外婚)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④ (고조선에서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었다. 그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되어도 풍속에 역시 그들은 부끄러움을 씻지 못하여 혼인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다. 이러해서 백성은 도둑질을 하지 않아 대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었다. 여자는 모두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농민은 대나무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고, 도시에서는 관리나 장사꾼을 본받아 술잔 같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다.

문 17. 다음 주장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한 태도는?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사관(史觀)이라고 한다.
역사가가 어떤 사관을 가지고 책을 저술 또는 편찬하는가에
따라서 역사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① 과거 사실을 밝히는 일을 지상 과제로 삼는다.
- ② 대중을 위한 역사를 만들려고 적당한 윤색을 가한다.
- ③ 역사 서술에는 반드시 현재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 ④ 역사서를 읽을 때 독자는 저자의 사관을 염두에 둔다.

정답: ④

* 사관(史觀)

역사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history as past)’와 ‘기록으로서의 역사(history as historiography)’라는 두 측면이 있다. 전자가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면, 후자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 사실, 즉 시간적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모든 과거 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는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과거 사건들의 집합체가 된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역사가가 이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역사가의 가치관과 같은 주관적 요소가 개입하게 되며, 이 경우 역사라는 말은 기록된 자료 또는 역사서와 같은 의미가 된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하여 연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를 배울 때 역사가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① 랑케의 실증주의 사관의 특징으로서 ‘사실로서의 역사’ 개념이다. 올바른 역사 개념은 E.H Carr의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기반을 두면서도 ‘사실로서의 역사’ 방법을 취사하는 ‘절충주의적 역사’일 것이다.

② 역사에 윤색을 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다

③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취한다 해도, 역사 서술은 객관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역사가의 기본 소양이다.

문 18. 다음의 사상적 태도를 취하는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理)와 기(氣)는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물에 있어 이는 기의 주재 역할을 하고 기는 이의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불리(不離)의 관계에 있다. …… 일물(一物)이 아닌 까닭에 일이면서 이요, 이물(二物)이 아닌 까닭에 이이면서 일이다.

- ① 도덕적 신념과 그것의 실천을 강조한 동인(東人)들이 주도하였다.
- ②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전해져 근세 일본 유학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 ③ 얕이 있으면 행함이 있다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실천성을 중시하였다.
- ④ 관념적 도덕 세계와 경험적 현실 세계를 함께 존중하는 철학 체계를 수립하였다.

정답: ④

* 일원론적 이기론을 주장한 이이와 기호학파(서인 계열)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내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은 이황과 이이였다. 이황은 주자서절요, 성학십도 등을 저술하였으며, 주자의 이론에 조선의 현실을 반영시켜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우려고 하였다. 그의 사상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이황의 사상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전해져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다.

반면, 이이는 이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의 역할을 강조하여 현실적이며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이는 동호문답, 성학집요 등을 저술하여 16세기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 체제의 정비와 수취 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황(주리론): 영남학파(동인)	
사단(순선)->이, 칠정(선악 혼재)->기	기
이귀기천(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오
이기호발(이와 기는 상호 발생한다)	조
‘이발이기수지’, ‘기발이리승지’	‘
신분질서유지, 도덕원리 강조	사
일본성리학에 영향, ‘동방의 주자’	자
경(敬) 강조: 엄숙.차분 옳은 일에 몰두	사

③ 성리학의 절대화와 형식화를 비판하며 실천성을 강조한 양명학은 중종 때에 조선에 전래되었다. 학자들 사이에 관심을 끌어가던 양명학은 이황이 정통 주자학 사상과 어긋난다며 비판하면서 이단으로 간주되었다. 18세기 초에 정제두는 몇몇 소론 학자가 명맥을 이어가던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학파로 발전시켰다. 그는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인정하였으며, 양반 신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이 정권에서 소외된 소론이었기 때문에, 그의 학문은 집안의 후손과 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계승되었다.

강화 학파는 양명학을 바탕으로 역사학, 국어학, 서화, 문학 등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갔으며, 실학자들과도 영향을 주고받았다.

④ 이이는 관념적 도덕 세계(이(理))와 경험적 현실 세계(기(氣))를 함께 존중하는 철학 체계를 수립하였다.(이통기국론)

문 19. 다음의 현상을 촉발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래 아전의 풍속이 나날이 변하여 하찮은 아전이 길에서 양반을 만나도 절을 하지 않으려 한다. 아전의 아들, 손자로서 아전의 역을 맡지 않은 자는 고을 안의 양반을 대할 때, 맞먹듯이 너나하며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

- 목민심서 -

-
- ① 북벌론이 대두하였다.
 - ② 이양선이 출몰하여 민심이 흉흉해졌다.
 - ③ 소수 가문의 권력 독점으로 벼슬 길이 좁아졌다.
 - ④ 전국적으로 수해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만연하였다.

정답: ③

* 조선 후기 세도정치와 양반의 향촌 지배 약화

19 세기의 세도 정권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 가려는 능력도 지니지 못하였다. 세도 정권은 정조가 등용하였던 재야 세력인 남인, 소론, 지방 선비들을 권력에서 배제하여 사회 통합에 실패하였다. 향촌에서는 지방 사족을 배제한 채 수령이 절대권을 가지고 조세를 거두도록 하였다.

세도 정치기에는 관직이 매매되는 등 비리가 만연하였으며, 탐관오리들의 부당한 조세 수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더구나 자연 재해가 잇따라 기근과 질병이 널리 퍼지고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농민의 조세 부담은 더욱 무거워져 농촌 사회의 불만은 극에 달하였다. 부당한 수탈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또한 조선 후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부농층의 성장 욕구는 재정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이해와 일치하여 정부도 이들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납속이나 향직의 매매를 통하여 이들 부농층 성장의 합법적인 길을 열어 주기도 하였다.

종래의 재지 사족의 힘이 약화되고, 부농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향촌 세력의 힘이 충분히 강해지지 못한 가운데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서는 수령을 중심으

로 한 관권이 강화되고 아울러 관권을 맡아 보고 있던 향리의 역할이 커졌다.

이에 따라, 종래에 재지 사족인 양반의 이익을 대변하여 왔던 향회는 주로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에 의견을 물어 보는 자문 기구로 구실이 변하였다. 곧, 수령 중심의 국가 권력이 향촌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여 재지 사족이 지배하고 있던 영역을 장악해 나갔다.

관권의 강화는 세도 정치 시기에 정치 기강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수령과 향리의 자의적인 농민 수탈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① 북벌론의 대두하던 시기는 17세기 효종, 숙종 대이다.

문 20. 다음의 사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유물을 고르면?

(영락) 9년 기해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왜와 화통하므로, 왕은 평양으로 순수해 내려갔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한다.”고 하였다. …… 10년 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 관군이 이르자 왜적이 물러가므로,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성이 곧 귀순하여 복종하므로, 순라병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신라의 □농성을 공략하니 왜구는 위축되어 궤멸되었다.

① 칠지도 ② 호우명 그릇 ③ 진흥왕 순수비 ④ 배리 석불 입상

정답: ②

*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신라 군사 원조와 호우명 그릇

4세기 내물왕 때, 신라는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낙동강 동쪽의 진한 지역을 거의 차지하고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다. 또, 왕의 칭호도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한편, 신라 해안에 나타나던 왜의 세력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신라 영토 내에 머무르기도 하였다.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호우명 그릇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호우명 그릇: 경주의 호우총에서 발굴된 것으로, 이 그릇 밑바닥에 “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 준다.그 후로 신라는 고구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해 나갔다.

① 칠지도: 백제와 왜의 교류 관계를 보여 주는 유물. 일본의 이소노카미 신궁(石上神宮)에 보관되어 있다(근초고왕 대).

③ 신라 진흥왕의 정복 활동에 관한 사실은 단양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④ 불교가 성행함에 따라 불상이 많이 제작되었다.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여래 입상이나 백제의 서산 마애 삼존불, 신라의 경주 배리 석불 입상은 미소를 머금은듯한 당시 불상 조각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http://cafe.daum.net/his100> 해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백준기 선생님